



우리는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5조
아론을 성임하는 모세의 그림- 9 페이지

1967年 10月 4日 公보부등록 라-932

성도의빛 5
1969



영감의 멧세지

헨리 디. 테일러 (십이사도 보조)

우리는 이성이 쌓은 지식을 전혀 도외시하고 조언에 응하는 것을 맹종으로 간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 즉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에 기초를 둔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과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성취됩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광야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대양을 건널 배를 만들었습니다. (니파이일 서 17:17)

형제가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하였으나 니파이는 순종의 일념으로 가득찼고 자기가 받은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리라는 신앙과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믿고 있는 바를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그의 여러 형제에게 외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단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를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니일 17:50)

현재 이 순간에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하여 많은 가치 있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총 관리 역원의 검토와 승인과 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주님의 선택된 종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의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들의 조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5월 1일
(통권 제 46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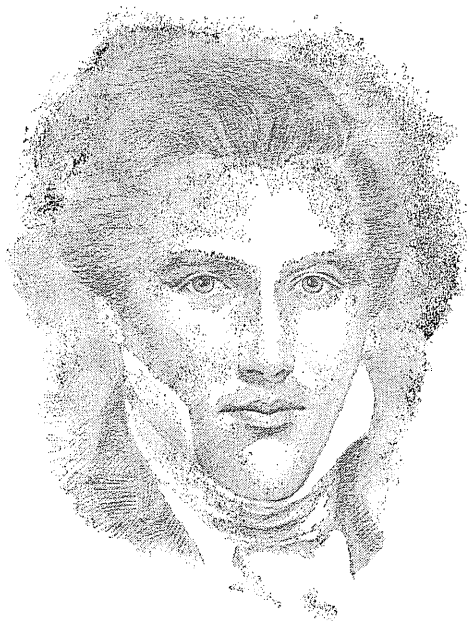
표지 설명 : 아론신권 회복을 기념하는 뜻에서 미국의 화가 헨리 앤더슨의 “아론을 성임하는 모세”의 그림을 이달의 표지로 실었습니다. 그림과 관계 기사를 9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제5권 제5호 순서 1969년 5월호

권두언 : 요셉 스미스 그의 지식의 근원 데이비드 오. 벡케이.....	1
성경상에 나타난 어머니 스테링 더블유. 셀	3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밀라 그린우드 메인	6
아론을 성임하는 모세의 그림 리차드 제이. 마샬.....	9
존경받을 어머니 후로렌스 비. 피녹.....	12
첫째가는 기독교인 조지 듀런트.....	13
주일학교 : 해를 거듭할수록 리드 에이취. 부렐포드.....	14
청소년 편 : 어머니의 위치 후로렌스 비트너.....	17
상호 부조회 : 하나님 등산의 가장 아름다운 꽃 조셉 필딩 스미스	19
용기 있고 힘센 팔 제이 엠. 토드.....	21
상향회 : 청년 상향회-자매애의 한 세기 후로렌스 에스. 제이콥슨.....	23
선교부장단 멧세지 : 믿음의 씨 이 호남.....	25
지방부장 멧세지 : 나사렐 예수의 부활의 소고 배 영천.....	26
내외소식.....	27

어린이 성도의 벗

엄마 다람쥐 놀래주기...도로시 맨서
육십장이 임금님...나타니엘 호손



요셉 스미스

●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 당시 14, 5세에 불과했던 요셉 스미스는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만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하였으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사실의 발표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은 마치 그들의 종교적인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부수어버릴 치명적인 일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의 근원

그가 최초로 선포한 메시지의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의사를 인간과 교통하실 수 있는 개체이며, 둘째 기독교의 어떠한 교리도 참된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교리는 “가증한 것이며” 그들의 교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행위였습니다. (요셉 스미스 2:19, 디후 3)

우세한 정통파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성직자에게 도전하는 벽안의 이 젊은이의 대담한 주장은 나사렛 예수 당시 이래,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웬스지에서 이단자로 선고 받은 루터의 도전도 이에는 비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감을 받고 시도한 노력은 다만 교회의 부패한 행위를 일소하려는 데 불과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요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셉 스미스는 그들의 교리에는 권능이 없고, 그 교리의 대부분이 전혀 거짓된 것이라고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한 요셉 스미스는 종교계로부터 곧 소외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그는 곧 자신이 고립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학문이나 철학을 알지도 못했고, 외로히 예술이나 과학의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혼자서 그에게 교훈을 베풀어 줄 만한 철학자나 그를 인도해 줄 목사도 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친절함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달려가 자기가 받은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으나 격렬과 조롱으로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씩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시현이니 계시니 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은 모두 사도와 함께 사라졌고 절대로 다시는 있을 수 없지 않소?”(요셉 스미스 2: 21)

이리하여 14세의 요셉 스미스는 자기를 실어다 줄 줄로만 알았던 배의 승선마저 거절 당한 채로, 전에는 보지도 경험 하지도 못했던 종교적 사색이란 대양을 향해 뜻을 울려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사기꾼이어서 배를 건조했다라면 그 범선은 극히 미숙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만든 것이 과거 수 백년동안 학문에 탁월했던 교수나 철학자들이 세상에 만들어 낸 것보다 더 탁월함과 우월함을 지녔다면 “이 사람의 지혜는 과연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하는 의문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고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독은 다만 시내산의 모세나 갈란산 위의 예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예언자의 지식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로를 통하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르기를 “나는 거치른 돌이었다. 주님이 나를 그의 손으로 잡기까지 끌과 망치 소리가 내게서 나 본 일이 없었다. 나는 오직 홀로 하늘의 지혜와 배움을 갈구했다.”(요셉 스미스 저 교회의 역사 423페이지)

이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 그는 자기가 가르친 것이 옳았음을 확신하였으며 두려움 없이 그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교리를 가르쳤을 때는 권능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그의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통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되는지 혹은 정면으로 다른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바가 일반교회의 가르침이나 인류의 전반적인 기준에 일치 되는지 안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가 일세기 이전에 권능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과 오늘날의 진보된 사상이 어떻게 조화되는 가를 아는 것은 펍 흥미로운 뿐만 아니

라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인도한 영은 처음부터 공정하였음이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훌륭한 선언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비록 그 일이 발생한지 오랜 후 까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옳은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256페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의 주장이 입증 된다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고 그곳에서 교리와 의식을 엄연하게 행할 수 있는 그의 권능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일의 위대한 경륜의 시대의 사업의 시초는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 주춧돌, 즉 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것과의 조화, 하나님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의 합리성, 교회의 완전한 조직, 즉 교회의 행정과 율법, 그리고 인간 가족에게 필요한, 인간 사회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적응성, 이런 것들과 위대한 말일의 과업에 관한 그의 여러가지의 국면을 단지 부분적으로라도 이해 한다면, 지각있는 사람들은 예언자의 지혜가 과연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적인 사상에 끼친 그의 영향의 발자취는 모든 사람에게서 역역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이것을 깨달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일세기 전에 하늘로부터 비쳐 온 그 빛은 오랜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둠을 쫓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세기 반의 전경을 되돌아 보고 이 소년 예언자가 소란스런 종교계의 한 가운데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 했다는 것과 이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을 볼 때, 또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소년은 과거 오랜 세월을 통한 철학과 인간의 최선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알 때, 그리고 이 소년이 자기 혼자 배움과 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여야만 했다라면 그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오늘날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표시된 어느 것보다 더 밝고 더 숭고한 것을 그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는 말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예언자라고. ○



● 어머니 날에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혜택을 주는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 형들의 역할을 했고, 또한 우리들의 정신적, 영적, 도덕적인 생활을 형성해 주십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미덕의 어머니라고 키케로는 지적해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경건한 마음, 신앙, 큰 희망을 낳게하는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격의 특징, 이상, 능력 등도 또한 모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낳게한 힘을 알기 위해서 그 결과의 이면엔 가보는 것은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성경 상에 나타난 어머니

스터링 더블유. 쉴

(십이사도 보조)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어머니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한번씩 우리는 마리아가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던 그날 밤을 되새기곤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89번이나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는 자기의 모친으로 부터는 몇번이나 인용했는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길을 지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자를 낳고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 큰 훌륭한 부인들에 의해 그 자체가 대단히 풍부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에 대하여 공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였던 곳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천국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히 12:9)

분명히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나 그 밖에 어느 곳에 있어서나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 갖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늘도 여자 없이는 하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인간의 죽게 될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숭고하고 죽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창2:18)



그래서 아담의 부인으로 선택된 위대한 부인을 위해서 여자의 몸이 마련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드러운 성격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천성이 사랑스럽고 영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삶의 특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아담은 마이클 대천사로 알려졌던 것처럼 틀림없이 이브도 훌륭한 자기 남편과 비교될만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인간의 첫 조상이 될 특권을 획득한 전세에서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써 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스러운 기록을 보면 “그의 아내 이브도 아담과 함께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담에게 임하여 아담과 이브는 많은 계시를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말하기를 “.....내 범범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이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범이 아니었더면 우리는 결코 선악이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 5 : 10~12)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들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도 틀림없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브는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 4 : 1).

아벨이 탄생한 후 9백여년 동안 이 땅 위에 인간을 옮겨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감으로써 갖게 될 비극도 알았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이고 무서운 저주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자 다니엘은 “태고의 존재” 혹은 제일 나이 많은 노인 이라고 부르는 아담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을 말해 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 : 9~14) 분명히 그 때가 오면 우리의 진실한 어머니인 이브도 아담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면에서 이브와 비슷한 또 하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고 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므로 주님은 그녀를 “열방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와 그의 남편은 죄 많은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의로운 백성들이 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성과 인격의 편모는 아직까지도 성스러운 기록의 페이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인내력이 강했으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

다. 분명코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방랑의 텐트 생활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90세가 넘어서 사라는 첫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바쳤던 사랑을 이삭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어머니인 사라가 돌아가시자 이삭은 비어 있는 텐트로 아내인 레베카를 맞아 들이기 까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여인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은 라헬인데, 그 뜻인즉 은화하고 겸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14년의 노고 끝에 야곱의 아내로 맞아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어린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 1 : 28) 이 자연적인 본능이 라헬의 마음 속에 은밀히 싹트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망 상태에 이르러 라헬은 괴로운 간구를 드렸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 30 : 1) 이렇게 라헬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부인의 생명도 둘째 아들 벤야민을 낳는 동안에 때 아닌 종말을 고히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용모와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의 교외에 그녀의 무덤을 표시해 주는 돌기둥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유명한 자녀 모세, 미리암, 아론 등 세 어린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야말로 신앙심이 강하고 재간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갓난 아기 모세를 죽이라는 정부의 포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갈대의 배를 만들어 안으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 연후에 그를 강변의 부들숲에 숨겨놓아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도록 했습니다. 영리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로 달려가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유모로 장래의 훌륭한 아들의 스승으로 추천했습니다.

룻 역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여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원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충절을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그 두 아들은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후 나오미는 홀로 남게되자 옛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부가 된 두 며누리에게 그들의 최선의 관심사는 모암 땅에 있는 같은 민족 속에 남아서 새 남편을 찾아 내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여자사이에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애정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웁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6~17) 그리하여 룻도 역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의 밀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훌륭한 지도로 인하여 상냥한 사랑이 룻과 후에 다윗왕의 증조부가 된 보아스 사이에서 싹트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고귀한 여자로서는 위대한 히브리인의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한나는 보기 드물만큼 하나님께 공헌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늘 슬픔과 비애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녀는 실로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의 일생을 하나님 사업에 바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마침내는 그녀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겨우 세살되었을 때 용감한 한나는 그를 신전으로 데리고가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엘리외의 지도 아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으며 결국 사무엘은 신전의 제사와 그 후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큰 특권 가운데 한나는 이스라엘 왕다윗을 성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마리아가 이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부터 선택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순결하고 성품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약속을 완전히 수행하였으므로 그 어느 여자도 당해보지 못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습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고의 겸손과 한없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한 무조건의 순종을 하였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촌인 엘리자베스에게 밝히면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께 기뻐하였음을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을 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 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저룩하시며” (눅 1:46~49)

틀림없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품 안에 안았을 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여러번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른으로 훌륭히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적개심이 그를 둘러쌀 때,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오랜 슬픈 시간을 기다

리며 홀로 남아 있었을 때, 또 다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어간 후에도 그녀는 많은 여자들로부터 축복을 기리 받았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르키시면서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 19:26~27)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요한은 마리아와 살롬과 그의 다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모셨읍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읍니다. 요한이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이름 모를 여자가 서 있었읍니다.

그는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를 찾읍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답변하기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자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르기를 “그녀는 우리와 함께 이 안에 있으나 당신으로 하여금 그녀를 괴롭히게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꼭 만나 뵈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밀어 제치고 등불이 켜 있는 문 앞을 지나서 슬픔에 잠긴 몇 사람의 여자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왔읍니다. 잠시 자기 눈이 불빛에 익숙해지는 동안 그 여자는 머뭇거렸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찾는 여자를 확인한 후에 마리아에게로 다가가서 “나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누구이시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도 괴상한 이 말에 몸을 움직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낯모르는 여인의 얼굴을 날카롭게 보았읍니다. 마리아가 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슬픔의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자매님!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동정을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상심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당신의 사연을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리고 참 당신은 누구신지요?” “제 이름은 주딜이라고 하며 유대의 캐리오에서 왔읍니다.” “슬픔의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지 누가 알아요. 당신의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되 물었습니다. “내 슬픔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주딜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이마에 손을 얹고, 희색빛 머리 카락을 옆으로 쓸어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심한 질식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자기 목을 움켜 잡고 소리를 죽여 속삭였습니다. “나는 가롯 유대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꼭 한분의 또 다른 훌륭한 여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는 우리들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바람직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 “나는 별 재간도 없고 창조력도 없는 존재에 불과해.” 저는 이러한 표현이 사랑하는 친구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움이란 그것 자체가 귀한 선물이며,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친구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같이 했던 그 당시를 회상 합니다. 그때는 저녁 노을이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붉은 안개를 뿌리고, 흰 갈매기들은 물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날며 뱀을 그렸고, 모든 색채는 푸른빛과 우유빛으로 융화되어 하늘이 이마에 닿는 듯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고 서 있던 친구는 숨을 삼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청색과 백색의 조화인가!”

우리는 무릎까지 눈에 묻혀서 조그만 호숫가를 거닐 적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발산되어 새로 쌓인 눈 위에 뻘뻘이었습니다. 이 눈부신 경치는 어항보다 더 깊지 않은 웅덩이 속에도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부끄러움도 있고 눈물 방울을 보였으며 나도 그를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시를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어떠한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은 웬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미 출판된 서적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훌륭한 예술품을 판단하며 혹은 음악을 경청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어떨습니까? 또는 제 친구의 경우와 같이 그녀

의 무의식을 타인의 감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떨습니까? 이같은 소극적인 재능은 보다 더 능동적인 재능에 못지 않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력은 소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자세입니다. 이는 천재의 독점적인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 창조력의 불꽃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 되어 있고, 자체 보다 더 큰 사물에 정신이 반응하므로 일으킬 때 창조력은 발전합니다. 이 자세는 비가 온 후 장미색 저녁 놀에 의하여 자극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별 많은 밤에 웅대한 태양계를 응시하며 무한의 것을 경험하므로써 입증하게 됩니다. 갓 출생한 아직 몸이 마르지 않은 갓난 어린이를 바라볼 때에도 두려움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데서 오며, 우리의 정신을 높혀 줍니다. 이같이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창조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주 있다고 일컫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능력을 닦아서 이것을 작용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아는 것을 한가지 기능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일본식 가옥에는 특수한 달맞이 창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만월이 되는 시기에 일본을 문방하게 된다면 달맞이 파티에 초대 받을런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달빛이 지붕 위를 가득 비치고, 정원은 은빛으로 물들일 때, 여러분은 입을 열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할 안주인도 여러분의 온 주의력이 밤의 기적을 흡수하고 감지하



선물

밀라 그린우드 데인

는데 필요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와 그곳에 모인 손님들은 변해가는 세상의 신비함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주시하는 동안, 소위 피동적인 재능으로 깨달음을 행동에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상을 기록하려고 페인트와 화판과 펜을 꺼냅니다. 깨달을 줄 아는 천성은 더욱 창조적인 재능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연마 되어야 합니다. 어린애의 세상은 놀랍고 자극물이 가득찬 새롭고 신선한 세계입니다. 그는 아직껏 “하늘의 영광의 옛 모습을 지닌채” 이 세상을 봅니다. 만약 경이에 찬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보존되고 사물을 깨닫고 있는 어른의 조력을 받아 계속 재발견되지 않으면 이 어린이의 천성적인 상상력은 희미해 지고 그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비참하게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어느날 밤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 밖으로 다리고 나갔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영문도 모르고 따라나간 나는 눈을 들어 불타는 듯한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북극광이다.” “오—로라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받은 인상을 지금껏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쪽의 지평선은 붉게 타고 있었습니다. 장미빛의 반원형, 분홍과 노랑색의 리본 같은 긴 줄이 하늘을 둥글게 두르고 있어 때로는 바람에 날리는 휘장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의 줄기는 마치 화살처럼 날랐었습니다. 이 경이할 만한 현상은 북미주에서만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저의 부모님은 나의 단잠을 깨운 댓가로 이토

록 훌륭한 광경을 볼 수 있게 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후로 황홀한 석양 빛 연분홍의 구름, 진분홍의 목도리를 봐도 향수에 젖게 됩니다.

그날 밤 내가 터득한 깨달음은 다음 세대에 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작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석양이 장미빛으로 밝게 물든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이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말야!”

내 아들은 몇일 후에 보답을 주었습니다. 그날 밖에서 놀다가 흥분에 쌓여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하나님이 저 산을 온통 분홍색으로 칠하셨어요.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붓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 아들은 무엇인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자연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느 어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자신이 자연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있어요. 새들의 종류도 나에겐 생소한 것이예요. 더군다나 별이나 달은 나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것을 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느끼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달타이를 하려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태양계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이 외계에 대한 경이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려서 내가 북극광의 장관을 바라보며 이것은 옛날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북쪽집으로 부터 비치는 밤중의 햇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한 지식은 나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태양에 의하여 분산된 전자나 전화된 물질 혹은 그것들이 떠다닐 때 지구의 자력권에 의하여 반사된 것임을 알 필요도 없이 창조의 놀라움을 느꼈었습니다. 그 날 밤에 경험한 사실이 내 마음 속에서 호기심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훨씬 후에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의 창조력은 그것에 관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명령합니다.

눈먼 헬렌 켈러는 그가 지은 “세 감각을 통한 세계”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린이가 그들의 오감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힘을 상기토록 하고 싶습니다. 문화개혁의 확실한 희망은 항상 자녀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이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건설적인 흥미를 갖도록 항상 격려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모든 형식과 같이 그 어린이의 감각은 개성에 적합한 기술에 의하여 각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기에게서 다음과 같은 건전한 효과를 갖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색채나 교묘하게 조각된 조개껍질에 두 눈을 모아 쳐다보려 애쓰거나, 자기 정신을 쓸리게 하는 음악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엄마)의 얼굴을 만져 보려고 하거나, 혹은 꽃 냄새를 맡아보고 웃음짓거나 하는 일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두는 것만큼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힘을 교묘하게 길러 나가도록 있는 숲씨를 다 발휘해서 노력한다면 그 어머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다섯가지 감각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 주고 한다면, 무지개의 저쪽 끝에 있는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나 달성된 아름다운 꿈 등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충성의 증거품을 그 어린이에게 갖다 바치는 충실한 요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의해서 마음이 황홀해지는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감각이 잘 정돈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정신적인 성숙에 도달할 최선의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사이에는 일치하는 점이 있고, 다섯가지 감각이나 혹은 그 중의 몇가지는 내적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할 때 그 개인은 자제력과 더불어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까닭입니다.”

작지만 놀라운 일들이 미처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렌즈를 통하여 모래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 모래는 많은 송이의 장미 꽃이나 수정체 모양의 보석이 됩니다.

확대경으로 눈송이를 들여다보지 못한 아이는 아주 풍부한 신미적 경험을 못한 셈이 됩니다. 해변에서 가져온 평범한 성게 한 마리는 어린이를 경이로 짝 차게 합니다. 복잡하게 꽃 모양을 한 모형은 마치 인간의 손으로 완전하게 새겨 놓은 듯 싶습니다. 작은 개미의 다각적인 활동은 창

조의 기적에 속합니다. 작은 렌즈를 통해 보이는 꽃이나 단순한 풀잎 혹은 어떤 작은 생물이라도 예기치 못했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 줍니다.

보는 감각(시각) 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감각은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즉 봄날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린 후에 축축한 땅의 향기, 따스한 방의 냄새, 음식을 준비할 때 부엌으로 부터 풍겨오는 향기로운 냄새, 조수가 들고 날 때의 바다의 냄새, 꽃밭으로 부터의 혼합된 여러가지 향기 등을 냄새 맞는 일 말입니다.

귀로 듣는 일은 더 많은 의식적인 교양을 필요로 합니다. 봄날 어느 이른 새벽에 교통의 소음과 시끄러운 인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어린이를 깨우십시오.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새들—울새, 까치, 참새 등이 부르는 새벽의 합창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여러분은 소쩍새가 그의 밤의 노래를 새벽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이르러 바람이라도 일면 교통의 소음을 떠나 시골의 어느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새들이 서로 들 노래하며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음악에 주의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집안이 온통 좋은 음악으로 짝 차게 만드시고, 어린이와 나란히 앉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가지 소리와 리듬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나 느낀 것이 무엇인가를 어린이에게 물어서 그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그들의 감각이나 감정을 통하여 음악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만든 테두리 속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음악같은 것을 어린이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를 마련해 주시고, 어린이가 만질 수 있을 만큼 장성하면 곧 자기 손으로 레코드를 틀게 하십시오.

이처럼 어린이가 레코드를 틀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한 곡의 음악을 잘 알고 난 후에는 즉석에서 작곡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음악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음악에 재주가 없으셔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 부르십시오. 어린이와 같이 댄스도 하십시오. 근육을 활동하여서 음악을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바람은 지금도 숲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메아리 소리는 우리들의 집 추녀 주위에서도 들립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비의 구름이 바닷물이 되기 까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얼굴에 떨어지는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들은 오늘날에도 가을에는 먼 곳으로 떠나가고 봄이되면 그들의 노래와 리듬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누구나 주의해서 들어 주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계절은 항상 각 계절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 나가고 우리는 대개가 자장가나 칭송의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우리는 다만 이 모든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

아론을 성임하는 모세의 그림

리차드 제이. 마살



● 종교 역사의 위대한 사건들을 묘사한 그림들 중의 하나로 최근 전시용으로 혹은 교회 전관에서 사용하도록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삽화가인 해리 앤더슨에 의하여 그려진 이 새로운 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성경 역사의 강렬한 순간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터 명을 받고 그의 형인 아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에 아론의 이름을 따라 부른 소신권 혹은 레위신권의 열쇠를 부여해준 거룩한 모습이 예술가의 생각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심스러웠던 성경 연구의 흔적이 이 그림에 시도되었으니 이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대개의 경우 그러했듯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어느날 레위의 두 형제가 천막 예배소의 뜰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짓도록 명을 받은 천막 예배소로 둘러쌓인 뜰은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찌니.” (출 27 : 9)와 같이 바깥 세상과 격리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남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뜰 바깥쪽에 서 있고, 그들 중의 몇사람은 번쩍이는 금속으로 만든 전통적인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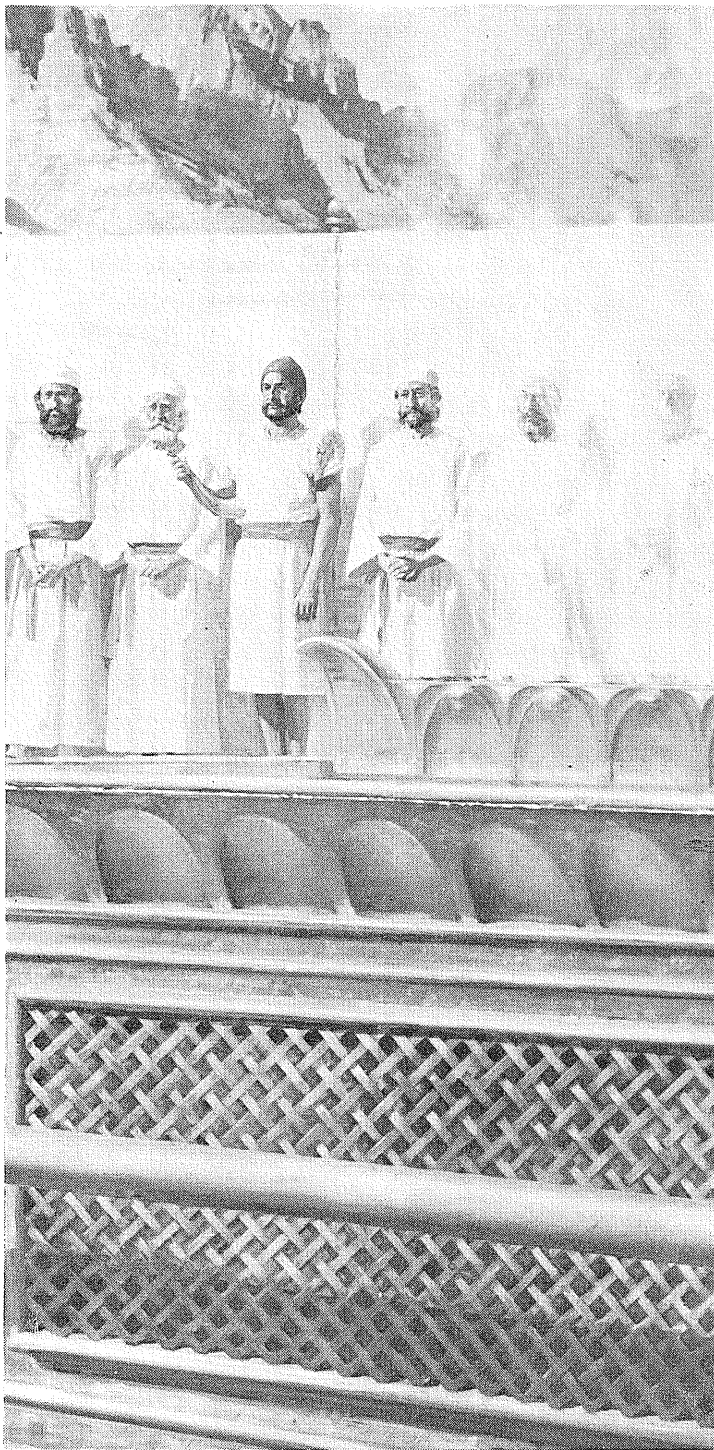
모세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출 28 : 1) 네 아들 중의 둘은 예배소 천막의 입구에서 있으면서 모세가 그 아버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주고 권능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은 꽤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심히 까다로운 설명에 따라서 공들여 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꼭 입어야 한다고 선고 하셨기 때문에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찌니 ...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출 28 : 2~3) 이 제시는 하나하나의 옷을 펴 강조했는데 그 옷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장식되고 네 줄의 보석이 달려 있는 황금의 흉패가 붙어 있었으며, 각기 열 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두 보석이 있어 에봇라고 불리는 상의의 양 어깨에 하나씩 붙이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을 여섯을 한 보석 위에 다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은 순금의

사슬로 흉패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정묘하게” 되어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보석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넓이와 길이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예는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출 28 : 15, 18, 19) 또한 흉패 속에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우림과 둠뭉이 있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의 마음 속에 간직하도록” 할 것을 잊



지 않게 하셨다.

다른 예복, 요대, 모자나 관 등의 의관에도 “여호와 성결”(출28:36)이란 말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찬란한 색의 조화를 이룬 예복 가장자리에 금방울이나 석류나무 무늬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예복에 관한 대부분의 묘사는 옛날 유대인들의 전통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뉴욕시의 히브리 박물관에서의 연구에 의하여 수집된 것입니

다.

햇빛은 성막의 문과 제단 사이에 늦쇠로 만든 대위에 세워진 잘 닦은 청동쇠의 대야 표면에서 작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외에 레위 백성들이 성막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나 제단 앞에서 의식을 행하기 전에 그 대야에서 발과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주의자들에게 의하면 이 의식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성결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대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사용하던 늦쇠나 동으로 된 거울 같은 것이 거룩한 그릇을 만들도록 헌납하여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아론의 성의처럼 대야의 도안은 경전과 히브리 박물관에 있는 참고서적으로 부터 취해진 것입니다. 그 대야의 대는 발을 씻는 물이 담겨 있었고 대야 자체는 손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에는 두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향을 피우는 제단으로 성막 내부의 장막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깥 뜰에 세워진 번제(희생과 제물)를 위한 늦쇠의 제단이었습니다. 늦쇠를 입힌 아까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청동의 제단은 성경에 명확히 정의한 대로 종과 밧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제단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지식을 통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 위치는 거룩한 성막의 바로 문 앞에 있어 “희생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수 없음” 분명히 교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량의 쇠붙이들—대야와 번제의 제단—은 단지 세웠다가는 또 풀어 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광야를 헤매이며 끌고 다녔던 귀찮은 성막이나 외부의 벽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견고한 권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싹트는 신앙과 계율을 힘차게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이 그림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적합한 기구가 되고,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보탬이 되며, 하나님의 신권과 왕국을 더 알고자 하는 모든 관람자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 받을 어머니

후로렌스 비. 피녹

●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과자와 빵을 만든다.” 한 어린 아이가 뽀뽀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꼬챙이에 꽂은 아이스캔디와 온종일 빨아 먹는 막대기에 붙인 사탕과자도 만든다.” 네 살 먹은 아이가 맛 장구를 쳤습니다. 또 다른 꼬마가 지지 않으려고 소리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 화 나실 때에 웃으실 수도 있단 말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는 그토록 위대해 보이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랑을 받을 만도 합니다.

어머니는 잘 자라는 인사, 아침의 광명, 웃음 짓는 안녕, 침울한 날의 무지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잔등을 쓸어 주는 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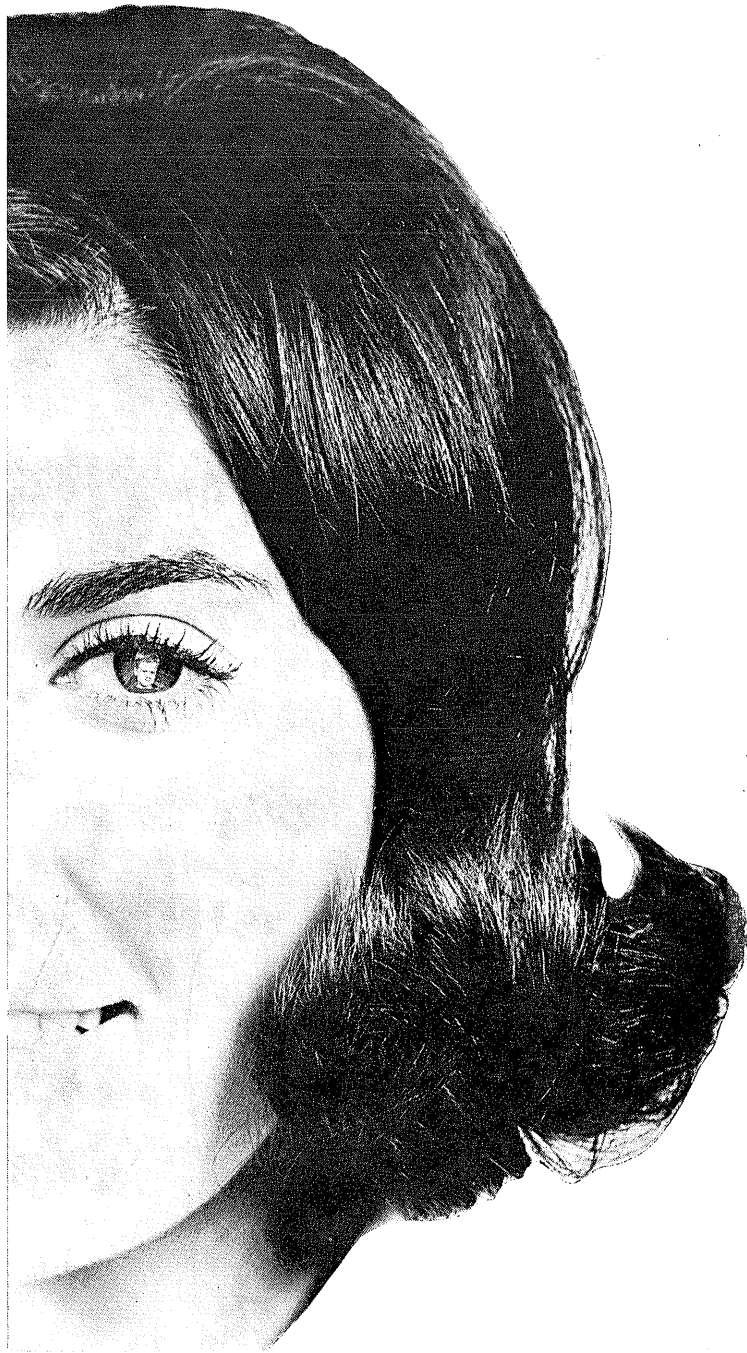
만짐, 옆에서 기도하는 무릎, 진실한 대답, 양식의 채찍자, 넘치는 과자 함아리.

행복한 내일로 문을 열어주고 그외에도 셀 수 없는 것들—이렇게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위대한, 크고 큰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 미터 정도의 어린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몸을 뒤로 재치고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십대들이 어머니를 쳐다볼 때의 시선은 보통 어머니 시선과 평행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백 칠십 센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어도 다 사 백 오십 센티 밖에 안되는 작은 어머니를 계속 올려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쪽에 많은 일을 맡기게 합니다. 어머니로서 생전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어머니는 이 사랑과 존경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날이 새고 날이 지고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끊임없이 완전하게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시중 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의무를 남에게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맛 있는 과자, 빵과 아이스캔디, 사탕, 과자를 만들 수 있다면 자녀들의 찬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찬사를 받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미소할 수 있거나,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한 낙관적인 면을 찾아 볼 수 있거나, 성가신 잔소리로 격려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만을 중요시 하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향상케 할 수 있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불평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머니는 찬미를 받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존경 받기 위하여는 매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못지 않게 자녀들의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입에서 “오늘 운동회가 끝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렴. 내가 마실 것과 다과를 준비해 놀테니 말야.” 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교회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렴. 과자라도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한 어머니의 일은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이 적극적인 습관이 형성되면 매일 자녀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청소를 도맡아 해야 되시겠지만 어머니의 하시는 일로 이루어진 시간은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힘을 느껴야 하고, 엄마를 기대는 벽으로서가 아니라 척추뼈를 뽀뽀하게 해주는 녹말로서 어머니의 힘을 느껴야 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모든 성분 요소 중에서도 사랑은 그 목록의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되 진실하고 튼튼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역시 견제의 힘과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독함을 씻어 주고, 남자다운 기백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며, 자기의 딸이 숙녀가 되고, 아들이 신사가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형인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할 열 두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삼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19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어머니도 그와 같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는 정말로 세상이나 자녀들의 눈에 백 팔십 센티가 넘는 어머니로 보일 것입니다. ○



첫째가는

기독교인

조지 듀런트

● 다른 세계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남한 일대를 휩쓸게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어느 기간동안 나는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반면 한국 사람들은 혼돈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읽고 들은 미덕이 기독교인으로 추측되는 군인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동과 아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민간인들은 우리 영내에 매일 들어와서 우리는 바라고 싶지않은 친한 일, 부엌일 등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봉급을 받았으며 이 타협은 쌍방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영내를 돌아다닐 때는 우리를 처럼 잡초와 다른 초목이 난 사이의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인들과 한국사람이 마주치면 한국 사람들은 열 잡초 위로 뛰어 나오고, 그동안에 군인은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형세를 목격했을 때 이때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한국 사람들의 땅이니 오히려 우리가 길을 비켜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후로 한국 사람들과 길에서 마주치면 내가 먼저 길 밖으로 물러서는 버릇을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하는듯 하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과 마주쳐 지날 때는 언제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나는 군인들이 한국 중업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몇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내음을 알았습니다. 좋은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적합한 표현이 아닐런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것을 나타낼 때는 “넘버 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는 “넘버 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찢차를 이야기 할려면 “이것은 첫째가는 찢차입니다.”라고 말하고, 만약 그것이 대파된 차면 “이것은 열번째 가는 찢차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내에서는 하사나 혹은 그 이상의 계급을 달고 있으면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 있어도 한국 중업원은 그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규칙처럼 통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자기 식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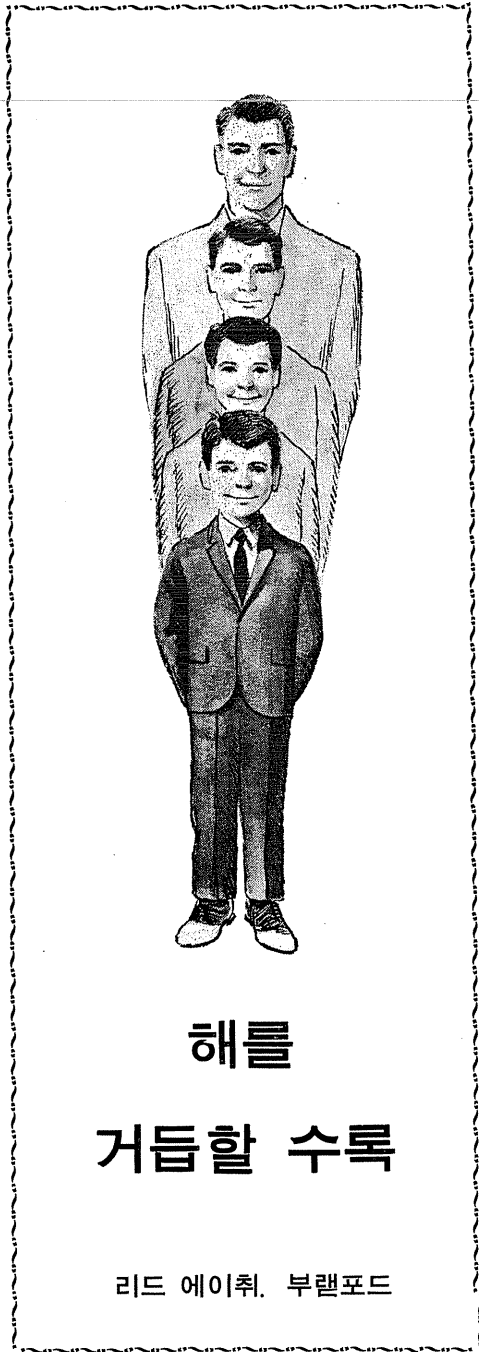
어느날 나는 식당으로 들어서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늘어서 있는 사람이 많음을 깨닫고 식사를 하고 있는 다섯명의 친구 옆에 앉아 그 열이 짧아 지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 팔꿈치에 누가 있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굴을 들고 쳐다 보니 한국 중업원 한 사람이 식사를 담은 쟁반을 가지고 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도 식사를 막 내려 놓려는 것을 보고 나는 내 팔뚝에 붙여진 계급장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새까만 줄병인데 이 음식은 내가 받아 먹을 수 없지 않아요.”

그는 나를 조용히 내려다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첫째가는 기독교인 인고로 이 음식 시중을 들어 드립니다.”

나는 한국 중업원이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였는지 압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작은 일 때문입니다.

“첫째가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이 작은 것을 합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라고 불리우는 큰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성인으로서의 키



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가끔 성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은 자제력 없는 노여움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예로서, 어느 부모는 그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치 않은 사람과 이야기 할 때 부모는 성급함과 불만을 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반성해 본다면, 아이들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령이 20~25세가 되어야 비로써 육체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는 다섯살 된 어린아이에게 「이봐, 나는 네가 육체적으로 성숙되어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성인으로 변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성숙, 즉 이지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인 성숙과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범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현격한 성장의 경우를 살펴 봅시다.

1. 미운 오리새끼

한스 크리스찬 앤더슨은 알을 품고 있는 한 마리의 오리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날이 지나서 알은 하나씩 껍질이 깨어졌으나 단 하나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알은 더 오랜 시간을 요했습니다. 마침내 큰 알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새끼 한 마리가 굴러 떨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크고 흉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런 오리새끼가 다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저와 함께 살 수 있담.” 어떤 오리가 곧장 달려가 목을 쪼았읍니다. 참가련한 오리새끼였읍니다. 그 오리새끼는 다른 오리와 암탉들에게도 쪼이고 밀치고 괴로움을 당했읍니다.

이것이 첫날에 벌어진 일이었고 날이 갈수록 만사는 더 험악해 졌읍니다. 그 불쌍한 오리새끼는 모두에게서 이리저리 쫓겨 다녔읍니다. 하다못해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천대를 받았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길 되풀이 했습니다. “너는 괴상하게도 몸이 커서 고양이와 와야 잡아갈 수 있겠는데!” 이제는 엄마 오리 자신도 그가 “멀리 가버렸으면” 했읍니다. 오리들은 그를 꼬집고, 암탉은 찍고 이 집에서 기르는 닭과 오리의 모이를 주는 여자아이도 발로 걷어 차려고 했읍니다. 그 후로 그는 달아나서 생나무 울타리를 펴덕이며 날랐으므로 그 울타리 나무 속에 있던 작은 새들도 놀래서는 하늘로 날라 올라갔읍니다. “아! 내가 못생겨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는 눈을 감고 생각 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력저력 멀리 떠나

●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눅 2 : 52)

“또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교성 93 : 13)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방이 성숙한 행동을 해주기 바라

갔습니다. 기어코는 몹시 피로하고 기가 죽어서야 큰 늪으로 왔으나, 그곳의 들오리들 까지도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개도 그를 보자 그만 달아나 버렸습니 다. 놀란 암탉도 그를 바보라고는 떠미는 것이었습니 다.

마침내 그는 넓은 세상을 혼자 떠나가기로 생각했습니 다. 여기에서 그는 많은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 다. 겨울이 닥쳐와 날씨는 무척 추웠습니 다. 정말로 험상궂은 겨울이었으나 그것도 다 지나고 드디어 봄이 돌아왔습니 다.

어느날 그는 자신의 날개를 움직여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큰 정원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 다. 모든 봄의 생기가 약동하는 이 정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 다. 그때 앞에 있는 숲으로부터 세마리의 백조가 똑바로 날아 왔습니 다. 이 오리새끼는 훌륭한 새들을 보고 이상하고도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 다. “저 훌륭한 새들 앞으로 가로질러 날러가 봐야지.” 그는 아마도 백조들이 자기를 죽이리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다음과 같이 중얼 거렸습니 다. “오리에게 물리고, 암탉에게 쫓이며, 모이 주는 계집아이에게 발로 채며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들에게 죽는 것이 더 좋을거야.” 그는 그들을 향해 날아갔습니 다. 그를 발견한 백조들은 그에게로 날아왔습니 다. 그는 공포에 떨며 그의 머리를 물에 닿도록 숙였습니 다.

그러나 그가 맑은 시냇 물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였습니 까?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모습을 본 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 였습니 다. 그 그림자는 보기 싫거나 회색 빛을 하고 추악한 귀염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새는 아니었습니 다. 정말이지 그 자신이 백조가 되어 있었습니 다. 그는 진실로 여지껏 겪었던 그 많은 고생과 궁색이 다 지나간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그를 반겨주는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을 그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그들 큰 백조는 물 위를 빙빙 돌면서 주둥이를 대어 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 다.

2. 엘마의 영적인 성장

그러나 모사야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며, 엘마의 아들 중 그 아비의 이름을 좇아 엘마라 하는 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여 심히 간악하고 오만에 젖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이 많고 백성들에게 잔언이 설을 퍼뜨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가 행하는 죄악을 좇아 행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백성들 간에 불화를 일게 하며, 하나님의 원수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를 열어 주어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 데

크게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사야 27 : 8, 9)

그러나 엘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 다. 천사 한 분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 다.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지라.” (엘마 36 : 9)

이런 경험을 하고난 결과로 그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습니 다.

“.....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피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음에 영원한 고통에 쌓여 있었느니라.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행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의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했느니라.” (엘마서 36 : 12, 13, 15)

그러나 엘마는 주님에게 개인적인 서약을 하고, 자기 행동을 고쳐 나갔습니 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내가 맛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며, 저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 왔느니라..... 보라,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엘마서 36 : 20, 24, 25).

3. 빌센스의 변화

정치적으로 유명한 엘콜 증독자인 아버지와 음란증 환자의 명사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빌 센스의 어린시절은 정말로 불행했습니 다. 그가 십대 소년이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여 반항정신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마침내 쉐 켄튼의 수용자로 끝을 맺었습니 다. 그곳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사람이 그의 생애를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중의 한 사람은 곧 유명한 형법 개혁자 윌슨 클린턴 티 더휘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감방 친구인 캐릴 체스맨이였습니 다.

오늘날 센스는 범죄를 방지하고 전과자나 전과자가 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정직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십자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이 저술한 기록 중에서 가장 영감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 큰 초상 ■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에 항상 “큰 초상

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적인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이와같은 큰 초상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과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은 아마도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1. 감정이 입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그의 주위 환경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내 막내 아들의 이름은 랜디이며 나는 일곱살입니다. 나는 가끔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랜디, 네가 일곱살이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였지?” 이 생각은 내가 랜디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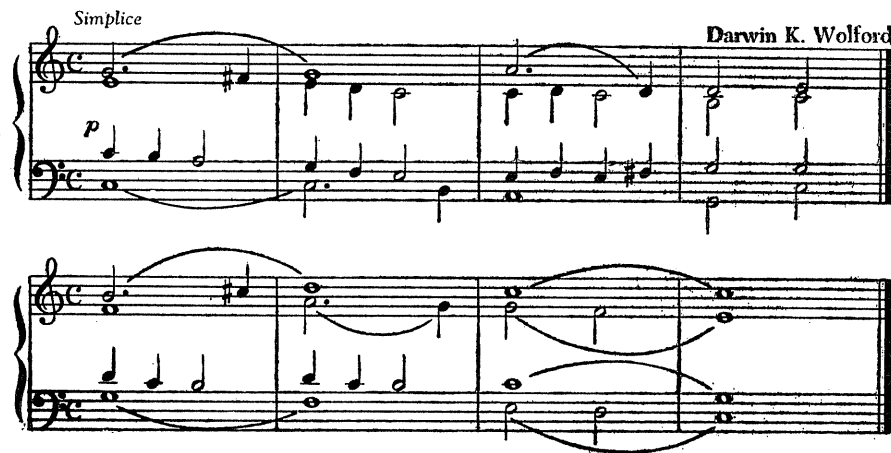
2. 감정의 한계를 넘지말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의 한계’를 넘는다면, 다시 바꾸어 말해서 타

인의 감정을 부당하게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 밀접해지고 그를 돕는다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타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려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뜻 있는 성장을 기할 수 있고 더욱 유익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인내심을 갖자. 이는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다만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를 가져오기 위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력을 통해서 타인이 다음과 같은 거룩한 원칙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원칙이란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의 주님의 중요성, 거듭나는 능력, 그리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말합니다. ○

성찬식 전주곡



5월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 학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 (요 14 : 6)

유년 주일 학교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니라.” (창 1 : 27)



<청소년편>

어머니의 위치

후로렌스 비트너

● 어머니와 자녀들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물과 기름의 사이가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내의를 빨래해라, 귀를 닦아라, 양말을 빨아라,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라 등의 시시한 일에 범석을 떠는 때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훌륭하십니다. 특히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는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보다 더 요리 솜씨가 좋은 분은 없다고 믿고 있으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접시에 무엇이 남아 있나, 또 간식은 어린이가 손 닿지 않는 곳에 몇 그릇이나 남아 있나 챙겨보는 일을 잊어버리셨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중요치도 않은 생활의 잔일, 즉 숙제, 피아노 연습, “오늘밤의 텔레비전 푸로는 다 봤잖니?” 등과 같은 일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길 건너에서 하고 있는 축구 시합이나, 역도 연습이나, 멀리에서 보기 좋게 공을 넣는 농구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들은 가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지나가 버리게 하기가 일수입니다.

어머니와 소년들은 특수한 학교 모임이나 소년단 모임 같은 메인 곤잘 함께 참석하지만 방과 후에는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머니와의 문제는 주고 받는 말 때문에 생기는 것같은데 어머니는 아이들 보다 훨씬 말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말다툼이건 특하면 노하고, 오늘밤은 저녁밥을 안준다고 위협을 해서 끝마치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꺼리가 되는 것은 온종일 학교에 가 있는 일도 어려운 일임을 어머니들이 이해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란 학교에 가서 하루 온종일 뛰어놀고 해가 다 저서야 집에 돌아오니까 곧 공부할 때라고 어머니들은 가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가서 일 하여야 할 장소가 있지요. 만약 어린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부엌이겠고, 할 일은 빵과 과자를 만들고, 쵸코렛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글쎄, 꼭 해야 할 일을 말하자면 어린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는 부엌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가 학교에

세상의 누구도 어머니와 같지는 않으며.....

서 돌아올 때쯤해서 그 과자를 아직도 따끈하며 부엌은 특이한 냄새를 풍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쯤 어머니가 이웃집에 불려가시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배고픈 이 어린이가 두 세차례 부엌을 들랑거리면서 과자를 집어내지 않도록 그때까지 엄마는 집에 돌아와 제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어린이가 입을 옷을 미리미리 깨끗이 손질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너무 사소한 일, 즉 풀밭에 뒹굴어 무릎에 풀물이 들었거나 양말에 구멍을 내거나 샴쌍의 단추를 풀어놓고 다니는 것 등으로 인하여 야단법석을 하시지 말았으면 훨씬 더 좋겠어요. 또 한가지 사고는 어머니는 한번도 남자 아이가 되본 일이 없다는 거죠. 아롱든 여자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처럼 옷을 무릎까지 내려뜨리거나 양말에 구멍을 내거나 단추를 때 먹는 일은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극히 드물겠지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항상 “도대체 너는 옷을 어떻게 입는 건지 알수가 없구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어요.

때로는 아빠가 야구할 때 공을 쫓아 멧 있게 슬라이드 한 번만 하면 양복바지의 무릎팍이 어떻게 되는가를 엄마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사내 아이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지만 바지가 그 모양이 되고마는 거죠. 누구든지 운동장에서 두 세번 멧 있게 슬라이드를 해도 무릎팍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양복감을 발견해내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때로는 이런 것을 아빠가 엄마에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엄마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또 식사 바로 전에 방해를 하죠. 즉 아이들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오장육부가 맹렬하게 꼬르륵 소리지르고 있을 때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저녁식사시간 전에 군입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뿐이니 기가 막히잖아요. 글썄 그리고 여지껏 후라이팬도 안내놓고 있으니 그 저녁 식사가 언제나 될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사내 아이는 금방 먹고도 저녁밥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참 훌륭할 때가 많지요.

어머니에게선 좋은 냄새가 나지요. 일종의 향수 같은.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땐 잠깐 따스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플 때에는 엄마가 마실 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그러시다가도 아이의 기분이 좀 귀찮아지게 되면 또 다시 저고리 단추를 꼭 끼어라. 물에 젖지 않게 하라는 등 고작 그런 일로 야단법석을 시작합니다.

그렇긴 해도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꼬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있으면 참 편리해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깐요. 대개의 경우 어머니는 아들편을 이해할 줄 알고, 한편은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소 불안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 주겠지 하고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엄마 뿐이죠.

때때로 어린이에게 생긴 문제 혹은 이 어린이의 잘못을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만 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때 그 아이는 엄마와 얘기하고 나서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은 안하지만, 그리고는 계속 그 문제가 참 난관이라고 많은 불평을 터뜨리고는 있지만, 진짜 문제는 가끔 꼬마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가서는 안될 바로 그때 가는 것이죠. —그 꼬마의 문제 해결을 돕는 답시고 선생님한테 가는 것 말예요. 선생님과 어머니가 자리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꼬마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말고요. 비록 어린이가 어머니께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터이니 집에 가만이 계시요라고 소리소리 지르지만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속으로는 은근히 기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엄마와 얘기하는 것은 재미 있어요. 특히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다던가, 네가 어렸을 때는 어땠다느니 하는 등등의 얘기를 꺼낼 땐 재미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아이는 밤새도록 앉아서 듣고 있지요. 이때쯤되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시계를 보시고 이렇게 까지 밤이 깊어진 것을 몰랐다고 말하시거든요. 밤 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대문을 밀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애야 나 여기 있다.” 하는 대답을 듣는 것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때에는 집안이 꼭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꼬마는 자기 하던 일을 가서 하게 되고 만사가 다 잘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아이들과 어머니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아서 다른 한 쪽이 자기 주위에 있어야 더 좋아하나 보아요. 어머니는 숨을 쉬는 것같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린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그를 방해하지 않을 때가 제일 즐거운 거죠. ○



우리의 자녀

“하나님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꽃”

조셉 필딩 스미스
(십이사도 정원회)

● 이 세계가 계속하는 한 불변의 진리이고 아무리 세계가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들 중의 한가지는 가족—부모와 어린이로 구성된 조직체—이 교회내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 진리는 순결하고 진진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잘못은 다른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여야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최선의 준비로서 우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일 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여러분 각자는 최소한 지혜와 빛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호의 흥미, 지식, 취미, 그리고 조화 등의 감정을 토대로 하여 세워지는 완전한 한집 식구라는 친근감을 갖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나 재산 문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에서, 이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한 다른 모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착한 자매님, 가정의 중요성을 도의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고 확신 합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자녀가 없는 가정을 나무가 없는 토지—불모, 불실의 땅에 비유해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중에는 최상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과오를 범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주위 환경이 아주 불우하면서도 성공하게 되는 예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비중이 가정 교육에 달려 있고 이 가정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친근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이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의 답이 무엇이 되리라는 것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즉 우리의 자녀는 어느 노 작가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꽃” 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모가 되는 특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의 머리위에 모든 세속적인 재산과 명예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승리 중의 승리이고 최상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얻고, 만약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가8:36)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자녀를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버지라는 특권과 이 어린이를 가졌다는 축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의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게될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다음 세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 아들과 딸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는 삼중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 그가 이러한 절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는 자녀와의 친밀한 교류와 습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했나?

유사이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왔다고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례가 없던 최악의 시대라고 공언하는 쪽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우리는 다소의 제약은 있지만 후자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 않으면 안될 정말로 크고 심각한 위협을 못 볼 정도로 어두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모두를 합친 것 보다 더 큰 관심사는 자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들 위협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길은 가정과 그 가정이 풍겨 주는 영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의 일부가 특히 젊은 여성이 가공할 만한 직업적인 범법 속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가지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딸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집안 일에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교육받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교육이나 훌륭한 모범을 통하여 도덕의 옳은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조금도 도덕적인 의식을 개의치 않는 소녀가 많습니니다.

현대는 보수주의와 재즈의 대결의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등의 이해도 동정도 없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니다. 어머니는 너무 적게 주려하고 딸은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 문제를 신중히 그리고 철저히 검토해서 이해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대신에 서로 물어뜯기를 좋아합니다. 만일에 부모되는 여러분이 이들 재즈 시대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인

내심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죄사슬을 끊고 달아나서 자기네를 이해하여 주는 세계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헤어 나지 못할 비극이 가로 놓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감정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친구 사이와 같이 될 때 뿐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인이 공통적으로 개탄하여 우려하는 점입니다.

정말이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정반대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기질이 자라면 물질적인 선물을 받거나 남의 수고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가치있는 물건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 이러한 종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부모가 때만하여 기인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아마도 요즈음 어린이들의 잘못은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고 세상적이거나 영적인 권위거나를 막론하고 도대체가 권위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린이만이 져야 할 잘못입니까? 지금은 불경 불손의 시대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가지 확실한 치료 방법으로서 가정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고 준수하는가를 살피는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엇보다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비교적 자세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가정은 또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작업장이고 그들이 갖추게 될 예의 범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참다운 의미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참되게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부모와 자녀의 양편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나 특히 부모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까. 양편이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효과적인 교육은 어린이가 자기가 한 일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에 이루어 집니다. 어린 아이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고 위대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요소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잠을 재운다든지 하는 자기의 할 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모르는 일에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의 아름다움과 필요함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경시하도록 가르쳐 주고, 그것을 해보도록 허락해 주는 일입니다.

“저리가 있거라. 그리고 나중 혼자 있게 해 주려므나. 나는 바빠서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라고 성급한 어머니가 집안 일을 도와 주려고 하는 세살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뉴욕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스미스 자매와 제가 참석했을 때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하던 말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그 대회에 출석했던 사람에

게 부모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부모에게 말씀드리라고했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이러한 말을하려고 할 때 멀리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작은 어린이는 자기 엄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좋은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밀어 내지말아요. 응”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까? 도와 주려고 하는 욕망은 정상적인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것을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안 식구가 모두 제 맡은 일을 처리한다면 집안 살림의 고역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이같은 의무를 완수하는 과정의 협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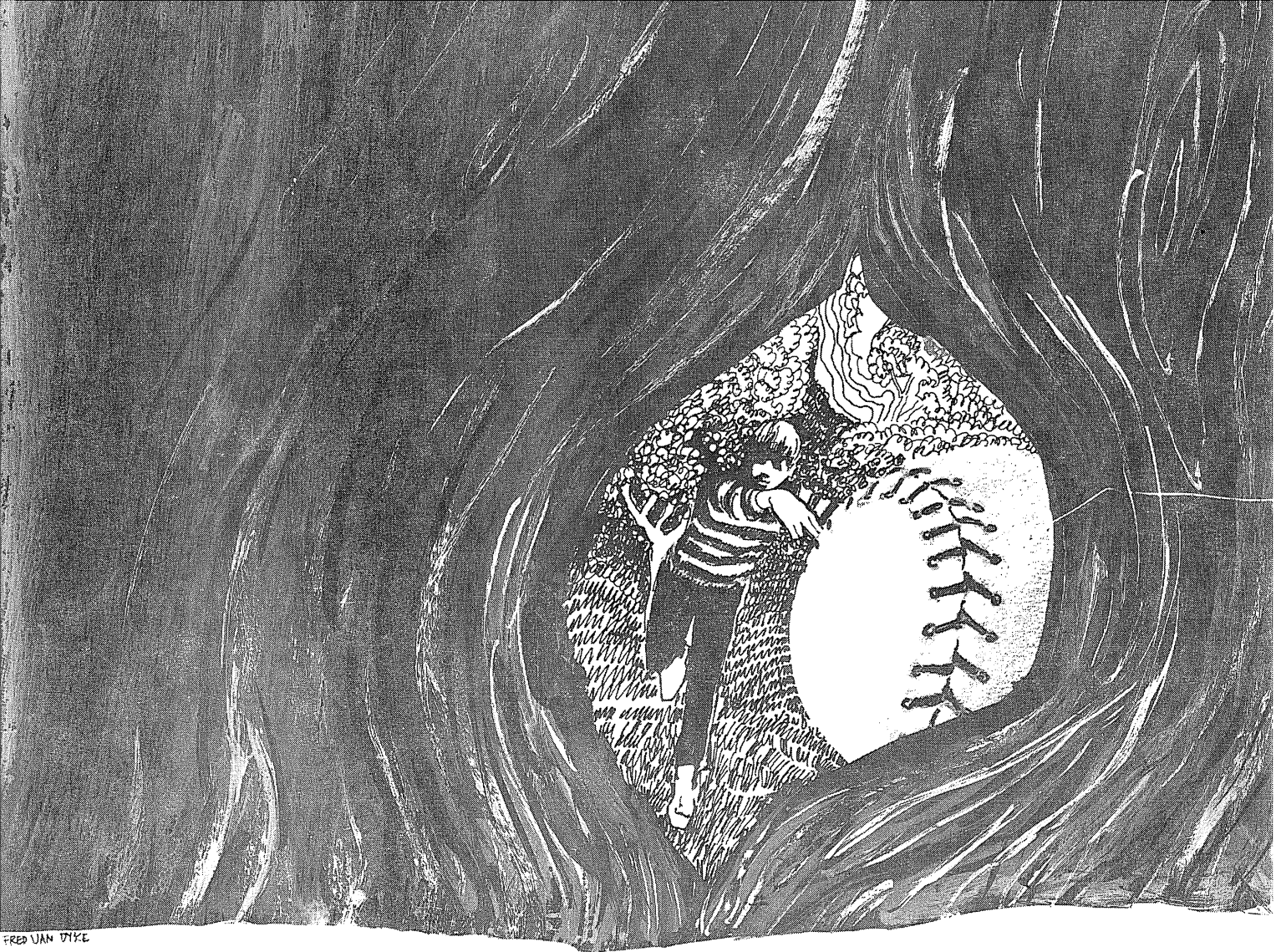
동정적인 이해를 증진

제가 우리들 부모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길을 따르고 그들과 같이 여러가지 책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청춘의 꽃은 정의의 태양을 향해서 머리를 굽힐 때처럼 아름다울 때는 결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이나 알아두시고 그들과 좋은 작난 친구가 되어 주고, 다음과 같은 워즈워스의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는 늙어가는 사람에게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최선의 선물이며 어린이는 그와 함께 희망을 가져오고 기대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 인간의 역사를 회고하여 보면 영광으로 칭찬했던 과거를 볼 수도 있으며 또한 눈에 보는 듯한 약속으로 충만한 미래 업적을 낮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가 오늘날 즐기고 있는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지고의 목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어 자녀가 그들에게 안겨진 진통을 감사히 받아들일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들 부모는 이 진통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결실을 맛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맥케이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 단체에 조화를 가져오고 국가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이 증오심, 이기심, 탐욕, 원한 그리고 질투심과 같은, 조화와 평화의 적이 되는 것을 우선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속한 스테이크와 와드로 돌아가는 여러 자매님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하셔서 여러분을 인도, 보호해 주시길 빕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며 맥케이 대관장님 또한 저를 통하여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실 것으로 확신하오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용기 있고 힘센 팔

제이 엠. 토드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1968년 전 교회 청남 상향회 대서양 위원회에서 호머 와너 상을 수상한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와드의 조지 에드워드 버스비 감독의 이야기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고무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조지 버스비의 생활의 특수성을 알고있는 사람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예로 들더라도, 전 교회 소프트볼 경기에 계속 9회나 출전해서 4위 혹은 그 이상 —4위에 세번, 3위에 세번, 2위에 한번 그리고 1위에 두번—을 획득했는데 계

속해서 출전한다는 사실만도 용이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 교회 체육인 상패를 세번이나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비 감독은 교회 총 연식 야구 팀에서 네번 표창을 받았고 한번은 최우수 선수로 지명되었는가 하면 또 한번은 교회 울스타 농구 팀의 일원이 된 일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앓은 소아마비로 볼구가 되어 남은 한팔, 다리 그리고 어깨로 이 모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버스비 맥을 방문하여 쏘트 볼 선수권 대회, 울스타전에 참가하여 받은 67개의 상패와 나란이 서 있는 마술, 야구, 미식 축구, 농구, 그리고 5, 6 종목의 다른 경기에서 받은 수십개의 상패와 리본을 보는 사람은 곧 이 진정한 선수가 거두어 드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로운 수확을 낳은 불굴의 용기와 냉혹하리 만치 강했던 의지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아리조나주 세인트 데이비드 시에

서 조지 버스비와 함께 성장하던 사람도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세인트 데이비드 시 텐트 안에서 1926년 10월 10일 세상의 빛을 본 후 9개월 밖에 안된 어린 조지는 소아마비—당시는 영아의 중풍으로 알려졌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고, 관계 의사는 곧 숨결을 거두고 말 것이라고 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신권의 힘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는데 기적적으로 소아마비 증상은 팔과 어깨 및 다리에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이의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살이 되자 그는 아팠던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의 다리는 정상적인 균형을 되찾았지만 그의 팔과 어깨는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한된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팔로 일하기를 배웠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못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조지의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섯 살 되었을 때 넘어져서 불구가 된 팔이 다시 부러졌습니다. 다음 6년 동안에 팔이 7번이나 부러졌는가 하면 대수술도 네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 6년 동안 그의 팔뚝을 기브스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그 팔도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심한 이 기간 중 그는 자동차에 치어 심한 상처를 입어 진단을 맡은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다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병자 축복을 해 주었으며 신권의 권능은 심한 타박상으로 얼룩진 그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차례의 수술과 치료는 차도를 보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고, 그의 팔과 어깨의 근육도 원상의 상태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가 다 그러하듯이 조지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동경했지만 언제나 편이 모자라야나 끼워주는 처지였습니다. 이를 마음 아프게 생각한 조지는 어떻게 해서든 동무가 첫째로 뽑아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밤에는 울타리 기둥에 매듭을 만들어 놓고 공을 던지면 누이 동생이 공을 주워다 주고는 했습니다. 동생이 피로해 지면, 학교 운동장으로 농구 공을 가지고 가서 몇 시간씩 연습하곤 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는 자기 발을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배웠으며 넘어질 때에도 항상 오른쪽으로 넘어져 왼쪽 팔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때쯤 해서 어린 조지의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살 때는 31분동안 공을 쳐서 자전거를 상으로 탔는가 하면 12살 때에는 세인트 데이비드 시의 공기놀이 선수권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손가락이 굉장히 발달한 결과였습니다.

열세살이 되어서는 팔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어린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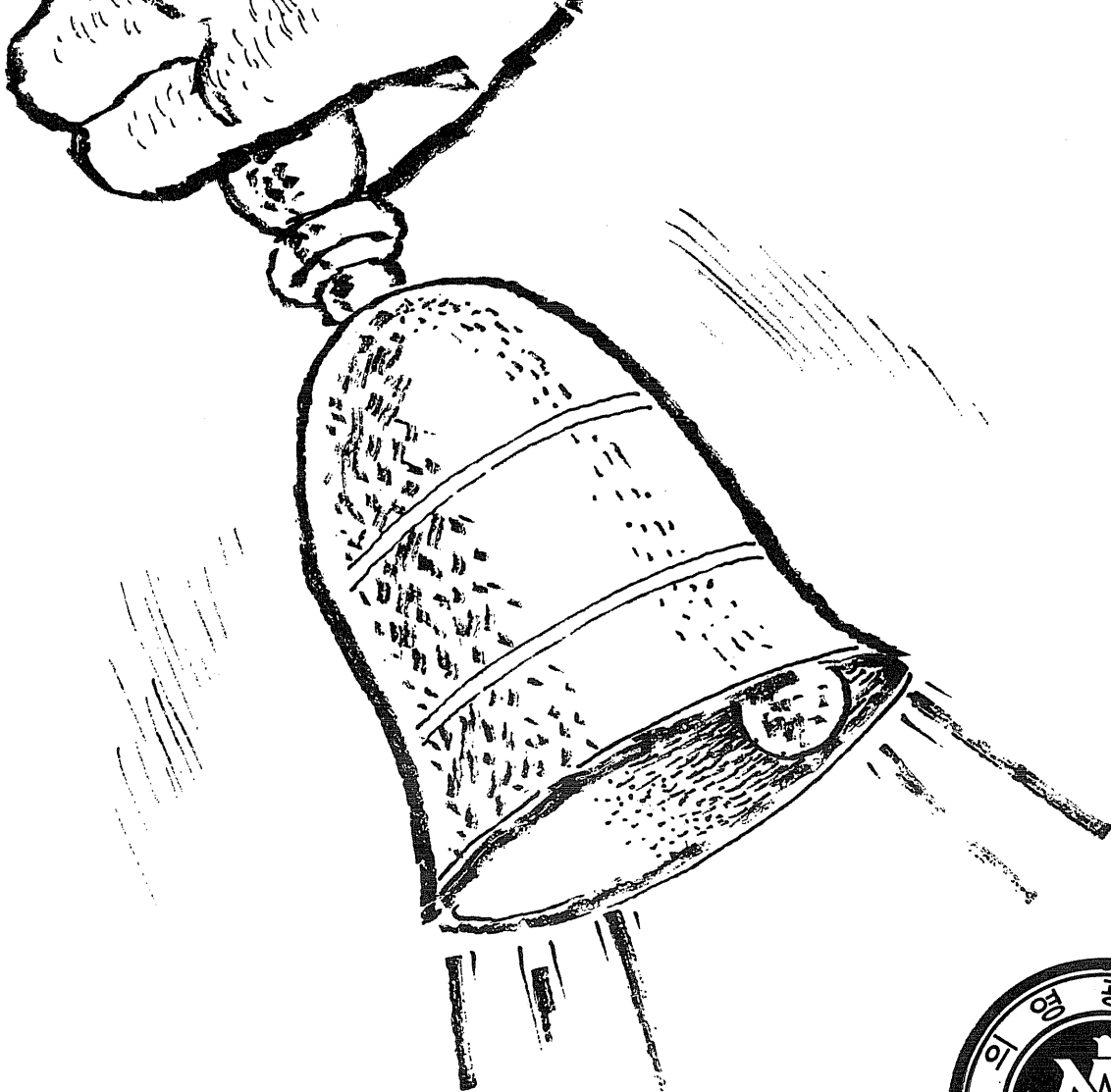
의 투수로는 적당치가 않아 성인 팀 선수로 뛰어야 했습니다. 오랜 작고 끝에 왼손에도 크랩을 끼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에 만족치 않고 다른 운동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일 저녁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그는 아리조나 주립 고등학교 반 마일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7세 때에는 그가 속한 와드의 농구 팀은 그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전 교회 대항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당당 6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8세의 조지는 두 차례의 시합에서 64점을 얻어 전 교회 우수 선수의 상패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남 아리조나주 소프트 볼 공개 시합에서 그는 가장 훌륭한 선수로 뽑혔고 이 시합에서 그의 팀은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합이 있을 때 마다. “첫째로 뽑히는” 놀라운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상을 여기에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10년마다 그의 선수로서의 관록을 측정하여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1944년—전 교회 대항 농구 시합에 출전. 1954년—전 교회 대항 소프트 볼 시합 출전. 1964년—전 교회 대항 소프트볼 시합 출전. 이들 중간에 혹은 이후에 획득한 선수권이나 개인상은 직업 선수가 한번쯤은 가져보고 싶어하는 선망입니다.

그러나 특히 1953년, 56년 그리고 66년은 조지 버스비에게는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즉 이 해에 그가 소속한 팀이 전 교회 체육 상을 수상했는데, 동일 팀에서 세번이나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단지 그의 팀 뿐입니다. 더우기 1953년에는 선수권 또한 차지하게 되어 동일 팀이 선수권과 체육 상을 독차지 하였습니다. 전 교회 대항 소프트 볼 경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탄 예는 단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정신이나 이와 병행하는 정정 당당함, 정직, 관대함, 타인을 돌봐줌, 건전성, 격려하는 정신 등은 버스비 감독을 대표하는 상표 구실을 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폭 넓은 기질은 그가 탁월한 기술을 끊임없는 연습으로 연마하여 얻은 것과 똑같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교회가 부여하여 주는 기회를 마음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쌓인 것입니다. 그의 전력을 다한 교회 봉사는 곧 발전의 기회였습니다. 아론 신권회 고문 즉 청소년의 교사, 소년 단장, 와드 체육교사로 또는 코치, 대신권 정의회 회장, 스테이크 상향회 보좌, 상향회 회장, 고등 평의원, 와드 재정 위원 그리고 현재는 감독으로 봉사 중입니다.

참으로 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종교가가 될 수 있다는 이상은 조지 에드워드 버스비 형제의 경우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 농구 프로그램의 창시자를 기념해서 제정되었고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호머 와너상의 수상자입니다. 이는 비상한 운동 경기를 구현하고 진정한 운동 정신과 영적인 면을 나타내 보인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



청년 상향회

자매애의 한 세기

후로렌스 에스. 제이콥슨

(청년 상향회 총회장)

● 1869년 11월의 어둡고 추운 밤 7시 였습니다. 그때 소녀들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종을 여덟번씩 울려 가족기도회를 알리는 일을 멈추고 정면에 자리잡고 있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곳에는 아버지가 벌써 언제나 즐겨 앉으시는 빨간 벨벳의자에 앉아서 가족이 모이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서로 크기는 다르나 한결같이 열성적이며 모여 즐겁게 환담하는 모습을 대견한듯 쳐다보고 있었었습니다. 각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의 예언자인 아버지의 겸손한 기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복에 감사하여 앞으로의 인도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일제히 나오고 그들이 제일 아끼고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밤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을 때 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자기 남자와 어린 아이는 제외하고 여자는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엄숙한 말씀에 정상적인 저녁 일과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모두들 앉도록 해라”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으며, 너의 어머니와 너희들 자신에 의해서 정해지는 본보기를 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첫째로 우리 가족들로 한 모임을 조직하여 질서와 검약, 근면과 자신의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의복이나 식사예절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기를 원한다. 보기 싫은 옷차림을 멀리하고, 알맞는 의복과 겸허한 행동을 보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정도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이에는 이의가 없을 줄로 안다. 세상의 허황하고 어리석은 유행을 따르고 있는 딸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의 유행을 가져 주길 바란다.……나는 시온의 젊은 여성들이 한 협회를 조직해서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원리를 보급시키고, 가르치고, 실제로 생활화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더 나이 많은 회원이나 또는 자신의 부모를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었다. 이스라엘의 젊은 딸이라면 진리의 살아 있는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의 딸들이 스스로를 위한 복음의 지식을 갖추기를 원한다. 이렇게하기 위해서 나는 이 단체의 조직을 원하며, 나의 가족 모두가 이 조직체에 참여하길 바란다. 나는 절약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모두가 가입하길 원한다……악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없애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청년 상호향상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이 시작되었

습니다.——1969년 11월 28일로 꼭 100년이 됩니다. 100년 동안의 봉사! 자매애로 이어진 100년! 한 가족의 자매가 모여 시작했으나 교회의 모든 자매를 한 울타리로 묶어 훌륭한 자매애로 연결할 수 있는 위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100년전 그 저녁에 모였던 부리감 영의 여러 딸은 세상의 유행을 외면하고 교양에 가득찬 본보기가 되고, 영적인 발전, 도덕적인 순결, 그리고 품격 높은 교양의 함양을 이루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6년후에 부리감 영 대관장은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교회 청년을 위한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때 이래로 수십만의 젊은 남녀가 전전한 활동을 즐기며, 마음의 문을 넓히며, 그들의 재주를 발전시키며, 숨은 재능을 발견케 하며, 우의를 증진시키며, 간증을 깨닫게 하고 교회나 종사하는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100년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서 상호 향상회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제2세기의 시초는 전 세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젊은이들이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 악순환의 세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회가 더욱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매애의 새 기원의 시작

청년 상호회 백년제가 1969년 6월 대회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때는 많은 활동이 개최될 것입니다. 그중에는 백년제 무도회, 경축 무용파티, 그리고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는 1969년 11월 28일에 개최될 무도회로 100년제를 축하할 것입니다.

이 100년제의 기념품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6월 대회 후에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만든 기념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는 아름다운 기념 벽걸이, 역사적인 백년제 책자, 아름다운 금, 은 팔찌, 장식품 이나 목걸이, 그리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넣은 수건 등이 준비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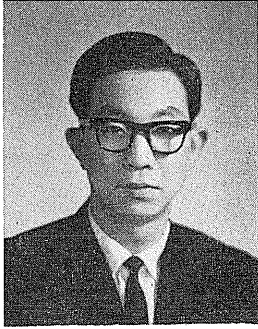


꽃 누 리

꽃 피우면 모든 것 꿈 같이 잊고 서로들 시새워 가지마다 꽃 피우면은 산이며 들이며 빛 고은 꽃누리를….

꽃 피우면 아득히 먼 날을 품고 마을마다 난만히 송이송이 꽃 피우면은 빛이며 향기며 그윽한 꽃누리를….

꽃 피우면 꽃바람 꽃바람 싹고 마을마다 훈훈히 꽃향기 풍기면은 하늘이며 땅이며 빛 밝은 꽃누리를….



믿음의 씨

선교부장 제일보좌 이 호 남

●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일년 중에 이날을 전후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봄은 여러면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계절입니다.

식목의 날 기념행사 식전에서 하신 대통령의 뜻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심는 식목일보다 가꾸고 기르는 식목일이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 하셨습니다.

농촌에 농부들은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옥한 땅을 마련하고 고이 간직했던 씨를 뿌립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열매, 좋은 식량이나, 훌륭한 건축자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에 나가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가운데야 기쁘고 결실에 찬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씨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튼튼한 신앙의 나무를 길러야 합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이동네 저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새들이 쪼아 먹었고,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은 났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악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며, 바위에 있는 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 민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저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참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우리들의 신앙의 씨를 기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첫째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

는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공을 갖어다 주며 존경을 동반합니다. 어느날 회사 사장이 공장을 시찰하다가 공장의 지배인을 만나려고 사무실에 들러 비서에게 지배인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비서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15분 후에 오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한 사장은 비서를 밀치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곧 조용히 문을 되 닫았습니다. “나는 지배인이 그런 신앙인인줄 몰랐소. 과연 지배인과 회의하고 있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요.” 그 후로 지배인은 가장 존경을 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인간을 낳습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는 무지와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참된 회개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와 결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하며 노력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모든 위험, 유혹, 어려움을 당했을 때 냉정과 단호한 태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배운 많은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다 목숨을 잃은 참된 용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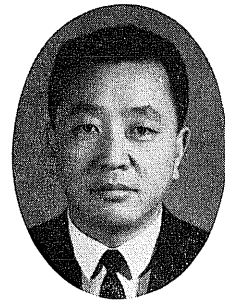
넷째는 내적인 적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곧 적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전투태세에 임합니다. 그러나 자기나라 안에 숨어 있는 오염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분렬은 외적인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으니 내적인 분렬, 갈등, 불성실 등이 자라고저 하는 신앙의 씨를 짓밟으며 간증을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부의 사탄을 경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씨를 가꾸고 기르기에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합당하고, 아들 딸이라 불리움에 부끄럼이 없는 신앙의 소요자가 되기를 빕니다. ○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소고

남부지방부장 배 영 천



● 구세주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은 이 지상에서 최대의 행복의 종이 울린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서 그 고통을 제거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완전을 향하여 진군하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서 최후의 장애물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안식일의 미명이 가까이 왔을 때 지구는 진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번개불과 같았고 또한 그의 의복은 눈보다도 더 희고, 그 빛나는 양상과 자세는 무덤의 파수군들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무덤의 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으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 요한은 무덤까지 뛰어왔으나 주님이 앉계심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일인간으로서 부활한 사람— 불멸의 그리스도의 영을 최초로 볼 수 있는 영예를 받은 것입니다. 이 무덤보다도 위대한 기적 또한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려고 수 없이 시도되었으나 실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보다 월등하게 확실한 증명으로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소생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서적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신앙과 성실성 만으로서 구하는 인간에게 옛날의 훌륭한 사도들이 웨친 것과 같이 경건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19:25)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신약성서에는 11회에 걸쳐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 무덤 근방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 16:9-10, 요한 20:14)
2. 무덤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판 여인들에게 (마태 28:9)
3. 에마오에 가는 도중에서 그 제자에게 (마가 16:12, 누가 24:13)
4. 예루살렘 근방 혹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누가 24:34, 고전 15:5)
5. 예루살렘에서 10명의 사도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누가 24:36, 요한 20:19)
6.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사도에게 (마가 16:14, 요한 20:26)
7. 갈릴리의 디베랴 해변에서 사도들에게 (요한 21)

8. 갈릴리 산상에서 11명의 사도에게 (마태 28:16)

9. 500명의 형제들에게 (고전 15:16)—갈릴리라 추정됨

10. 야곱에게 (고전 15:7)

11. 승천시 베다니 근방의 오리브산에서 11명의 사도에게 (마가 16:19, 누가 24:50-51)

우리들의 주님은 확실히 삼일째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마태 16:21, 17:23, 20:19, 마가 9:31, 10:34, 누가 9:22, 13:32, 18:33) 또한 무덤에 나타나신 천사(누가 24:26)는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나중이야 이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도 10:40, 고린도전 15:4) 삼일째란 이 말은 완전히 3일후란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의 시간을 일몰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몰전의 시간과 이와 계속하는 시간은 다른 날의 시간입니다. 예수는 운명하시고 금요일의 오후 중에 매장된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는 무덤 속에서 금요일의 일부(제일일째)부터 토요일의 일몰까지(제이일째), 그리고 일요일의 일부(제삼일째) 동안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토요일의 일몰과 주일의 새벽 동안 어느 때에 무덤을 떠나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덤의 입구에서 돌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자가 새벽 일찍 무덤의 입구에서 돌을 제거한 사실은—(마태복음 28장 12) 철추론은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큰 돌들이 떨어지고 무덤 속이 보이도록 노출되었던고로 무덤 옆에 온 사람들은 주님의 육체가 이미 그 무덤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구를 열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불사불멸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방에 홀연히 나타나시고 또 떠나셨습니다. 부활체는 촉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모든 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인력으로 인하여 지구에 붙들려 있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물질적인 장애로서 방해받지도 않았습니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823년 9월에는 기원 400년에 죽은 나파이인의 예언자 모로나이가 하루 세번이나 요셉 스미스의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도 이집의 벽이나 지붕은 하등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않았습니니다. 모로나이가 부활한 사람이란 사실은 현재 물문경으로서 알려진 금판을 가지고 나타난 모로나이가 자신이 육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부활한 인간들은 사람들의 눈에 자기 자신은 보일 수도 있으며, 또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니파이이서 9장 6절과 12절부터 13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같이 보편적이고 원대한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제일과 이, 삼으로 세가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골육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변형되지 않는 것이며, 부활체는 인력 또는 물질적인 저항에 저촉을 받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일생을 통하여 우리들의 병을 간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달래 주시며, 납득시켜 주시는, 사실상 그렇게 광범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따를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일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일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어머니 이외의 아무에게도 줄 수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일이란 천명이 손을 모아 하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고, 훈련하며, 먹이고, 돌봐주며,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 주며, 필요할때 징계를 가해서라도 올바른 성격으로 고쳐나가게 하고, 인생의 교훈을 모두 배울 수 있게 달래기 위한 사랑이 섞인 조심스러운 지혜를 구비한다는 일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당신은 그에게 아무 것도 바람 없이 하는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사람들이 말해 오듯이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¹ 이것은—즉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야할 징계를 하고, 현명한 신중성을 가진 사랑—곧 어머니에게 부과된 사명의 근본 요소입니다. “어린이의 생애는 거울과 같아서 그것에 비쳤던 영상을 후에도 나타내 보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일은 그 아이와 함께 영원히 지속됩니다. ……어린이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으로 배우고……피부의 숨구멍을 통하여서도 어린 아이는 배웁니다”² 어렸을 때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찌기 자극을 받고 조금씩 교화되는 관심이 중요하고, 일찌기 맘과 몸가짐을 바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일찌기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반영되는 어머니의 영상—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의무라 할 수 있을 만치 부드러움을 갖도록 합시다.”라고 안나 알. 린드세이는 호소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즐거워 보이고, 애정이 넘치며, 헌신적인 부인이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과……집안에서 할 일을 모두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삶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과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는 생활을 합시다.”³ 이런것이 어머니에게 주신 축복 받은 과일이고, 신념과 온순함 그리고 솔직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아니다” 라고 말할 때와 “그래”라고 말할 때, 학과 공부에 있어서와 생활 공부에 있어서 어린이는 “나는 향상되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감사함을 모두 다 표할 수 있겠습니까?”

1 작자미상

2 필립스 북크스

3 안나 알. 린세이저 “가치 있는 것이란?”

4 베오 제루이든 일광지 1967년 9월호